

빈손 국회 언제까지... 오늘 3당 회동 주목

한국당 대여 강경기조에 법사위 보이콧... 일정도 못잡아 이번주 폐회... 민생·개혁법안 이견 커 실마리 찾기 어려워

여야가 시급한 민생법안을 처리하자며 12월 임시국회를 열었지만 '빈손 국회'로 끝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7일 임시국회가 반란점을 돌았지만 각 당이 내세운 민생·개혁법안에서 여야의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는데다, 자유한국당이 여전히 새해 예산안 처리를 '뒷거래 예산안 통과'라고 규정하며 법안 처리에 비협조적이어서다.

특히 분회의로 가는 길목인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한국당 권성동)가 이날까지 전체회의 일정조차 확정하지 못한 것도 빈손 국회를 키우고 있다. 법사위가 각 상임위에서 의결된 법안을 분회의로 올리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법안 처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에서도.

지난 11일 시작된 임시국회는 23일 막을 내린다. 22일에 열리는 올해 마지막 본회의에는 인사청문회 일정 차질과 여야 대립 등이 없다면 안철상·민유숙 대법관 후보자와 최재형 감사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상정된다.

다만 각 당이 중점 법안으로 내세운 민생·개혁 법안들은 현재로서는 본회의 상정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임시국회에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법과 국가정보원 개혁법 통과에 총력전을 펴고 있지만, 한국당의 강한 반대로 목표 달성이 어려운 상황이다.

한국당은 대신 규제프리존특별법과 서

비스산업발전기본법, 파견근로자보호법 등을 역점처리 법안으로 분류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정책연대협의체를 가동하면서 규제프리존법, 서비스발전법, 방송법 등의 통과에 주력하고 있다. 규제프리존법 등 야당의 핵심 법안에는 민주당이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정책법안들에서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상황에 더해 법사위 운영도 차질을 빚고 있다.

한국당이 민주당과 국민의당의 내년 예산안 공조 처리에 반발한 이후 대여 강경투쟁 기조를 더욱 공고히 하면서 권성동(한국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법사위는 멈춰 섰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 지도부는 연일 "법사위에서의 법안 정체, 법안 병목 현상이 그 도를 지나치고 있다"며 "현재 법사위에 계류된 법안은 총 883

건으로, 타 상임위에서 여야 사이의 합의로 통과된 밀정법 법안도 법사위만 들어가면, 감감 무소식"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국민의당 김경진 원내대변인 역시 이날 논평을 내어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하는 국회가 정파적 이익에 악용되는 경우가 발생해서는 안 되며, 더욱 적극적으로 국회를 열고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나섰다.

반면 한국당은 여전히 새해 예산안 처리를 '뒷거래 예산안 통과'라고 규정하고 민주당의 사과를 요구하면서 법안 처리에 소극적이다.

이런 가운데 여야 3당의 우원식(민주당)·김성태(한국당)·김동철(국민의당) 원내대표가 18일 만찬을 하기로 하면서 정쟁 법안과 한국당의 '법사위 보이콧' 문제가 실마리를 찾을지 주목된다.

/김형호기자 khk@kwangju.co.kr

국민의당, 박주원 징계 각하 당기윤리심판원서 처리기로

국민의당은 '김대중 전 대통령(DJ) 비자금 의혹' 사건의 제보자로 자목돼 논란에 휩싸인 박주원 전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안건을 각하하고, 당기윤리심판원의 판단에 맡기기로 했다.

국민의당은 지난 15일 여의도 당사에서 당무위원회를 열어 박 전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여부를 논의해 이 같이 결정했다.

윤리심판원 제소와 관련, 당 관계자는 "비상징계 사유였던 박 전 최고위원의 직위(최고위원직 및 도당 위원장직)와 관련해서 박 전 최고위원이 오늘 사퇴했기 때문에 비상징계 사유가 해소됐다"며 "따라서 비상징계를 논의하는 당무위가 아니라 일반징계를 다루는 윤리심판원의 판단에 맡기기로 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이행정 대변인은 "징계안에 대한 찬반을 논의한 것이 아니라 윤리심판원에 제소하는 것으로 수정안을 낸 위원에 있었고, 이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며 "당원이 제소할 수 있지만, 안 대표 본인이 직접 제소를 하겠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안 대표는 앞서 지난 8일 긴급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당헌 당규에 따라 박 전 최고위원의 당원권을 정지하고 최고위원에서 물러나게 하겠다는 내용의 비상징계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날 박 전 최고위원은 당무위에 앞서 최고위원직 사퇴의사를 밝혔다.

박 전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비상징계를 원치 않지만, 조기에 사태를 매듭짓고자 하는 안철수 대표의 뜻을 충분히 이해해 스스로 직을 사퇴한다"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k@kwangju.co.kr



한국당 "지방선거 위해 쇠신" 자유한국당 이웅구 당무감사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현역의원 4명의 당협위원장 자격 박탈 및 원외위원장 58명의 당협위원장 교체에 대해 설명하며 관련 자료를 소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청원·류여해 등 62명 당협위원장 물갈이

홍준표 "지방선거제제로" ... 친박 현역 중진 대거 포함 반발 예고

자유한국당은 17일 서청원(8선, 경기 화성갑), 유기준(4선, 부산 서구·동구) 의원 등 현역의원 4명을 포함해 전국 당협 가운데 62명의 당협위원장 자격을 박탈하기로 했다.

한국당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조직혁신의 일환으로 진행해 온 당무감사 결과를 토대로 당협위원장 교체 지역을 발표했다.

한국당은 앞서 지난 15일 비공개 최고위원회 열고 당무감사 결과를 토대로 당협위원장 교체 '컷라인'을 1권역 및 현역 의원은 55점, 2권역은 50점으로 각각 확정했다.

당무감사위는 지난 한 달간 전국 253개

당협을 3개 권역으로 구분해 감사활동을 벌였다. 3권역은 호남지역으로 이번 평가 대상에서 제외됐다.

홍준표 대표는 당무감사 결과 발표에 앞서 자신의 페이스북에 "육속을 가리지 않고 지방선거를 치를 수 없기에 부득이하게 당협위원장 정비를 하게 됐다"며 "조속히 조직혁신을 하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지방선거 준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서청원, 유기준 의원 등 '친박' 현역 중진 의원이 포함되면서 당내 적잖은 파문이 일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은 이와 관련해 18일부터 20일까지 탈락자들로부터 재심 신청을 받기로 했다. /김형호기자 khk@kwangju.co.kr

이번주 줄줄이 인사청문회

민유숙·안철상 대법관·권순일 선관위원장·최재형 감사원장

올해 마지막 국회 인사청문 정국이 이번 주에 진행된다. 민유숙·안철상 대법관 후보자와 권순일 중앙선관위원장 후보자, 최재형 감사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줄줄이 예정돼 있다.

하지만, 여야 갈등과 주요 정당의 복잡한 당내 사정으로 청문특위 구성이 늦어지면서 제대로 된 검증이 가능할지 우려가 커지고 있다.

17일 국회에 따르면 안철상 대법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19일, 민유숙 후보자와 권순일 선관위원장 후보자는 20일에 열린다. 최재형 감사원장 후보자는 21일에 각각 청문회가 예정돼 있다.

국회는 민유숙·안철상·최재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특위를 14일에는 구성했고, 인사청문 일정도 15일에는 확정했다. 민유숙·안철상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지난 5일 국회에 접수됐지만, 그간 여야 갈등과 한국당 원내지도부 구성 일정 등으로 특위 구성이 늦어졌기 때문이다.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에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최재형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12일에 제출됐지만, 여야가 23일로 마무리되는 임시국회 본회의 일정(22일)

을 고려해 청문회 일정을 잡으면서 각 후보자에 대한 실질적인 검증을 위한 시간이 짧게는 사흘, 길어야 다섯밖에 남지 않게 됐다.

인사청문법에서는 인사청문 관련 자료의 제출 기한을 5일 이내로 정하고 있지만, 안철상 후보자의 경우 자료제출 기간이 사실상 사흘밖에 남지 않았다.

그럼에도, 한국당은 그간의 판결을 중심으로 자질을 따져나가겠다고 버티고 있다. 대법관 후보자들에 대한 한국당 청문위원 간사를 맡은 윤영석 의원은 "국민이 대법관에게 기대하는 면모와 판결 성향, 국민의 법감정에 맞는 분인지, 헌법적 가치에 맞는 지 등을 중점적으로 따져볼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당도 안철상·민유숙 후보자의 경우 판결을 꼼꼼히 분석해 자질을 검증하는 한편, 최재형 후보자를 대상으로는 감사원의 정치적 독립성을 어떻게 도부 구성 일정 등으로 특위 구성이 늦어졌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은 후보자들이 공직생활을 하면서 주변 관리를 철저히 했고 법조계 평판을 뛰어났다고 분석하고, 자질과 능력을 충분히 드러낼 수 있는 청문회가 되도록 한다는 전략을 세웠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근로시간 단축... 與, 샌드위치 신세

靑 "조속 입법"... 노동계·당내 일부 반발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인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입법을 놓고 시면초기에 빠졌다.

청와대에서는 조속한 입법을 위해 압박을 강화하고 있지만, 노동계는 물론 당내 일각에서도 반발이 터져 나오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은 환경노동위원회 여야 3당의 합의안에 노동계는 물론 중소기업계를 비롯한 경제단체 등이 일제히 반발하면서 비롯됐다.

여야 3당 간사는 주당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되, 휴일에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 할증(50%)·연장근로 할증(50%)을 중복해서 적용하지 않고 하나만 인정해 150%의 임금을 주는 방안이 합의됐다.

하지만, 노동계는 중복할증을 인정해 200%의 임금을 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중소기업계는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할 것을 주장하는 등 반발이 나왔다.

여기에 여당 일부 의원들이 중복할증 인정 의견을 내며 간사 합의안에 반대, 결국 근로기준법은 한도외 법안소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후 민주당은 재계와 노동계는 물론 당내 반대파 의원들의 실책을 시도했지만 거리는 좁혀지지 않고 있다.

하지만, 청와대는 여전히 신속 입법을 강조하고 있다. 실제로 11일 문재인 대통령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은 더는 늦출 수 없는 과제"라고 말했다. 다음날인 12일 당정청 조찬회의 이후 여당은 '연내 입법'으로 방향을 잡았다. 17일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어떤 형태로 일단 출발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3당 합의안에 반대하는 민주당의 한 의원은 "내년 3월 중복할증 관련 대법원 판결이 노동계에 유리하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며 "지금으로부터 노동계 설득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굳이 밀어붙일 이유가 있느냐"고 반박했다.

이 때문에 민주당 내 일각에서는 일단 의원총회를 통해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2018학년도 광신대학교 학부/대학원 신·편입생모집

학 부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모집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계열	모집학과	모집인원
인문	신 학 과	18
	국제한국어교원학과	1
사회	사회복지상담학과	2
	유아교육과	2
예능	음악 학 과	5
	실용음악학과	4

* 신학과는 군중사관후보생(군중장교) 선발시험에 응시 가능. (합격시 학부 4년, 신학대학원 3년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면제, 기숙사비 면제)
* 국제한국어교원학과는 한국어 교원자격 취득할 수 있음.
* 사회복지상담학과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건강가정사, 평생교육사, 상담심리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유아교육과는 유치원 정교사(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원서접수 및 전형일정

정시모집 · 원서접수 : 2018. 1. 6(토) ~ 1. 9(화)
· 전 형 일 : 2018. 1. 16(화)

편 입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계열	모집학과	모 집 인 원		
		정원내	정 원 외	유치원교사 양성 관련학과 전문학사학위 소지자 편입학(3학년)
인문	신 학 과	○	○	
	국제한국어교원학과	○		
사회	사회복지상담학과	○		
	유아교육과	○	○	○
예능	음악 학 과	○		
	실용음악학과	○		

* 음악학과 전공 ▶ 피아노, 성악, 관·현악(타악, 클래식기타 포함), 오르간, 작곡, 교회음악
* 실용음악학과 전공 ▶ 드럼, 기타, 재즈피아노, 보컬, 베이스, 색소폰, 작곡, 미디[레코딩], 싱어송라이터 등

▶ 전형일정 · 원서접수 : 2018. 1. 8(월) ~ 17(수)
· 전형일 : 2018. 1. 23(화)

신학대학원 편입

▶ 지원자격 및 모집인원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신학 관련 대학원에서 2학기 이상 수료한 자로 아래 세부 지원 자격에 해당하는 자 (단, 본교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신학연구(학)과(M.A.T.) 재학, 수료, 졸업자 포함)

모집학년	모집인원	지원자격
2학년	○명(주·야)	30학점 이상 취득자로서 2학기 이상 수료
3학년	○명(주·야)	60학점 이상 취득자로서 4학기 이상 수료

▶ 전형일정

· 원서접수 : 2018. 1. 8(월) ~ 1. 17(수)
* 서류심사 관계로 제출서류는 기간 내에 등기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해야 한다.
· 전 형 일 : 2018. 1. 23(화) 오후 2시 30분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영성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대 학 원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 전형일정

① 원서접수 : 2017. 12. 1(금) ~ 12. 12(화)
② 전 형 일 *모집학과 및 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대 학 원	과 정	모 집 학 과	모 집 인 원	전 형 일 시
신학대학원	석사	신학과(M.Div.)	47	2017. 12. 15(금) 오후 2:30
		신학과(Ph.D.)	6	2017. 12. 15(금) 오전 9:40
일반대학원	박사	목회학과(D.Min.)	2	2017. 12. 15(금) 오전 9:40
		유아교육학과(D.Ed.)	5	
		사회복지학과(D.S.W.)	5	
		상담심리치료학과(D.C.S.)	5	
		코칭심리학과(D.Psy.)	5	
	석사	통합예술통계학과(D.C.S.)	15	
		통합예술통계학과(D.C.S.)	10	
		신학과(Th.M.)	25	2017. 12. 16(토) 오후 2:40
		유아교육학과(M.Ed.)	8	
		상담심리치료학과(M.A.)	15	
상담치료대학원	석사	청소년상담지도학과(M.A.)	10	
사회복지대학원	석사	사회복지학과(M.S.W.)	20	
		평생교육학과(M.Ed.)	10	
국제대학원	석사	한국어교육학과(M.Ed.)	20	
		음악학과(M.A.)	6	
음악대학원	석사	음악학과(M.A.)	6	
		실용음악학과(M.A.)	6	

임학원의 ▶ 학 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택지소 36